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크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어린이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온 세상 위하여(찬268/새505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최재호 집사 2부/이명환 집사 3부/황인수 집사 4부/최현우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김기경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Altogether **다같이**
1부/갈.(Gal.) 2:20 2부/대하(2 Chron.) 7:14
3부/딤펴전(1 Tim.) 4:7-8 4부/요(John) 6:53-55, 7:37-39
- 말씀 MessageRev. Byoung Sam Kim **김병삼 목사**
1부/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2부/ 믿음생활 잘하기!
3부/ 믿음을 견고케 하는 훈련
4부/ 와서 보고 먹고 마시라!.....Rev. KyungTae Kwon **권경태 목사**
- 헌금/특송 Offering Song..... Altogether **다같이**
1부/공민 선교사 부부 2부/파송/협력 선교사 3부/디아스포라 목회자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베델은 세계로, 세계는 베델로

Bethel to the World, the World to Bethel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교회 설립 희년을 맞이하며 돌아보는 지난 반세기는, 하나님께서 베델 교회 위에 부어주신 은혜의 역사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땀 위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가 더해져, 이제 우리는 하나 되어 기쁨의 축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시작이 그러하듯, 베델의 출발 또한 작고 미약한 불꽃이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서 일어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교회의 태동으로 이어졌고, 지난 50년 동안 베델은 안으로는 견고한 믿음을 세우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향해 쉬 없이 달려왔습니다.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그 사역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회는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다시 얼바인으로 초청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열매를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영적 부흥의 자리이자, 더 지혜롭고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모색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베델은 지금까지 사랑의 헌신을 세계로 보냈고, 무릎으로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함께 동역해 왔습니다. 지난 주, 그들이 세계 각지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베델은 세계로, 세계는 베델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축제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전쟁과 갈등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며,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이러한 복음 사역을 위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었으며,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 우리 베델이 기쁨으로 맞이했던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베델 교회의 사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의 50년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듯이 다시 시작합니다. 이 뜻깊은 희년의 순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해 오신 모든 목회자들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해 오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s we celebrate the Jubilee year of our church's founding, we cannot help but confess that the past half-century has been a history of grace poured out by God upon Bethel Church. Upon the foundation of tears and sweat shed by our predecessors of faith, a new generation carrying new dreams and visions has been added; now, we are united as one, welcoming a festival of joy.

As with all great beginnings, Bethel began with a small and humble spark. The powerful movement of the Holy Spirit that occurred in Irvine, Orange County, led to the birth of this church. For the past 50 years, Bethel has run tirelessly toward its mission: building a steadfast faith internally and spreading the Gospel externally. We offer deep gratitude to God as we see missionaries established to preach the Gospel in every nation and their ministry's borders expand daily. This recent gathering served as a spiritual revival where missionaries serving across the globe were invited back to Irvine to share the fruits God has borne, and a precious opportunity to reaffirm our future mission and seek wiser, more effective ways to share the Gospel. Until now, Bethel has sent out devotions of love and tearful prayers to the world. We have partnered together by sending out missionaries. Last week, they returned from all corners of the earth to Bethel. It was truly a festival of grace where the slogan "Bethel to the World, the World to Bethel" was realized.

Today's world is experiencing turmoil amidst wars and conflicts, and nations are competing fiercely for their own interests. Even in such an era, the Gospel does not stop. Rather, it continues to move toward the ends of the earth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conveying God's love for all nations. This assembly was a time for spiritual recharging for this Gospel ministry—a time when many pastors and ministers gathered to be filled with the Word and grace.

Last week, we joyfully welcomed back the world and sent them back out into the world again in the name of the Lord, filled with God's grace. The mission of Bethel Church, established by God on this earth, is still in progress; we are starting anew, as if taking the first step toward the next 50 years. In this meaningful moment of Jubilee, I hope it was a time for all congregation to gather and be renewed through the Gospel. I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all the pastors who have dedicated to reaching this day, and to the congregation who have served faithfully without name or recognition.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병삼 목사

- 1부: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갈 2:20)
- 2부: 믿음생활 잘하기! (대하 7:14)
- 3부: 믿음을 견고케 하는 훈련 (딤후 4:7-8)

적용하기



선교 후기
T국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시간



저에게 이번 T국 선교는 부족한 저의 믿음의 수준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시간이었습니다.

3년 전, 예상치 못한 T국으로의 출장으로 T국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T국에서 일어난 산불 진화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지역들을 하늘에서 보게 하시고 또 직접 밟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도심에서 떨어진 외딴 마을까지도 비행 중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선교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T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마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5년을 마무리하며 아내와 2026년 계획을 이야기하던 중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T국이었던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에서 T국 선교 광고를 보게 되었고, 처음으로 선교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번 선교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믿음을 아시고 오로지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벽한 타이밍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저는 잘 준비해서 가서 선교사님을 도와드리고 이벤트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저희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LAX 공항에서부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목적지까지 잘 도

착할 수 있는 길이었고, 총 6명의 팀원이었지만 그 이상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의 삶을 옆에서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슬람 종교 안에서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며 항상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믿음을 보며 큰 배움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행복하게 웃으시는 모습들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는 제가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성전 완성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Come & See의 표어가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기도와 후원 없이는 불가능했기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영석 집사

사역 스케치
선교 바자회

복음의 기쁨이 넘치는 장터

우리 베델교회는 교단인 C&MA(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의 정신에 따라 선교에 마음을 다하며,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선교지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선교바자회와 같은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함으로 선교를 후원하고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물질, 수고와 섬김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손길이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번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도 많은 준비가 있었습니다. 장소 마련부터 도내이션을 모으기, 물품 구입, 음식을 만들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함께 준비하며 동역하는 가운데 곳곳에 기쁨과 활기가 넘쳤고, 섬김의 손길마다 감사와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특별히 각 목장에서는 저마다의 아이디어와 정성을 더해 이름을 짓고, 판매할 물건들을 준비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장

별로 셀가족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마음을 합하여 일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친밀함도 깊어졌습니다. 공동체로서 하나 됨의 기쁨을 진하게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들도 직접 판매에 참여하시고, 어린아이들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모두 함께 어우러져 웃고 즐기는 모습은 마치 정겨운 한국의 장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선교 바자회 당일엔 날씨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선선한 바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처럼 느껴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화음처럼 들렸습니다. '이곳이 마치 천국 같다'고 말씀하신 권사님, 환하고 행복한 얼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고 하신 집사님, 믿지 않는 이웃을 초대했는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하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고 나누시던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이번 선교 바자회를 통해 여러 모습으로 역

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자리가 아니라, 선교를 향한 교회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사랑의 교제가 풍성히 흘러가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함께 웃고, 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소영 권사



Come&See 50 특집 4

베델의 여정

성령의 불이 베델에 임하기를!



히년! 젊음을 바쳐온 반평생의 기억을 더듬으며 그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첫걸음을 디딘 베델교회는 라구나 힐에 있던 소평센터 안에 작은 교회로 강대상만 있고 아무런 시설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교인들도 몇 명 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듣고 울고 찬송을 부르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넘쳐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이후 얼바인 샌드캐년에 있었던 작은 감리교회를 빌려 이사를 했고, 1대 윤용오 목사님 때에 목사님을 비롯해 여러분의 헌신으로 얼바인

에 7에이커 되는 토지를 구입하고 작은 베델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스러움이 넘쳐났고, 한국에서 성령 역사의 소식에 우리 베델도 이천석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등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부흥회를 열게 되었으며 은혜받은 성도들로 그 수가 더해 갔으며, 날마다 담요와 방석을 들고 철야를 하는 믿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난 것처럼 베델에서도 많은 헌신자들로 김광신 장로님이 은혜교회를, 김충모 집사님이 선교사로, 김동백 의사 집사님은 갈보리 채플 한인 지부를, 유한성 장로님은 신학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인식 목사님이 3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후에 날마다 돌탕(돌아온 탕자)들이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활발한 사역과 봉사의 기쁨에 함께 동참했던 행복한 그 시간이 어제 같습니다. 이어서 4대 김한요 목사님

을 맞이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때 누구보다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던 저의 동역자이자 남편인 김동수 장로가 뇌출혈로 소천했을 때 중국 신학교 개교식 참석차 가셨던 손목사님이 천국 환송 예배 때 들려주신 메시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지내는 시간 동안 매주일 들려주시는 김한요 목사님의 말씀과 설에서의 나눔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은혜받게 하셨으니 또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베델에서 꿈꾸었던 시간들이 꿈같이 지나 노년을 보내며, 많은 사역들을 지켜보며 묵묵히 봉사했던 시간들 위에 생각해 보니 지금껏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책임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베델인으로 지난 추억을 공유하며,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김승희 권사



WWJD3 셀
은혜 목장

'What Would Jesus Do?'라는 이름의 셀과 2015년 가을학기에 처음 만나 오늘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변화는 한 셀에서 시작해 분가의 분가를 거듭하며 현재 WWJD7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저와 남편 김성균 집사는 2019년 봄학기, 더 머물고 싶었던 WWJD 본 셀을 떠나 셀 목자의 권면에 순종하여 WWJD3 셀로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쉬움도 있었고, 우리 부부가 셀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컸지만, 돌아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워 가시는 과정이었고 순종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성장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2019년 다섯 가정으로 시작된 셀은 코로나 기

간에 온라인으로 만나며 온라인 선교라는 새로운 사역에도 참여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나눔과 순종으로 한 장 한 장 영적인 성전을 쌓아 갔습니다. 이후 WWJD5의 분가하는 감동도 있었고, 정들었던 가정을 떠나보내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가정을 만나 다시 셀 모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벽돌을 더해 가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 가는 과정에서 기쁨도 있었지만 멈춤의 시간도 있었듯, 셀의 여정도 그러했습니다. 익숙한 방법으로 나의 성전을 세우려 할 때 생각지 못한 사건들로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 그 이유가 나 자신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에스라 시대의 성전 재건이 사람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 가운데 완성되었듯, 저와 셀도 각자의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

의 은혜와 순종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WWJD 셀의 역사는 공동체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벽돌 삼아 세워 가신 영적인 성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셀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예배와 순종으로 이어지며,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안예진 권사



가정의 달 특집
믿음의 4대

Bethel Families Serving Together

The clearest memory I have of serving at Bethel Church takes me back to the summer of 2002, between my eighth and ninth-grade years. My mother was one of the deaconesses tasked with preparing and serving meals during Vacation Bible School. In those days, Bethel hosted thousands of children for its annual VBS program, making it a massive undertaking. I remember accompanying my mom on frequent supply runs to Costco, Smart & Final, and Zion Market. My days were spent cleaning and cooking 40-pound bags of rice in large aluminum pots, washing endless dishes, and assisting her with various

preparations. At the time, I often wondered if I was missing out on the 'fun' the other kids were having. Yet, looking back, I don't remember the fleeting fun; I only remember the deep satisfaction of hard work.

It was a profound blessing not only to serve those younger than myself but also to have a mother who modeled the dignity of labor. That experience reinforced in me the words of the Apostle Paul: "Brothers, I do not consider that I have made it my own. But one thing I do: forgetting what lies behind and straining forward to what lies ahead, I press on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in Christ Jesus. Let those of us who are mature think this way..."(Phil. 3:13-15) Attaining the faith God has planned for us is often 'inconvenient' - it requires sacrifice, dedication, and discipline. If the path feels difficult, take heart: it is a sign that you are doing something truly fruitful.

Eric Cha



성례 간증
유아 세례

은혜로 자라게 하소서



베델에서 태어난 노아가 베델의 강단에서 유아세례를 받게 된 이 기적 같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결혼 후 사남매를 낳고 더 이상의 자녀 계획은 없었던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섯째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들 둘, 딸 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현실적으로도 다섯째는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셨고, 순종할 믿음이 부족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 3년간의 기도 끝에 순종하게 되었고, 노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노아를 바라볼 때마다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고 많은 수고가 따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한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겨주신 구원의 방주를 묵묵히 지어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배홍수 목사/장주혜 사모



우리 가정의 둘째 Ezra 건희의 유아세례를 맞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희라는 이름은 '세울 것과 빛날 희'를 사용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

나님의 빛을 세우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또한 영어 이름 'Ezra'에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신다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Ezra가 태어난 지 어느덧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Ezra의 성장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부모로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Ezra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는 삶이 중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며 걷는 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Ezra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성준 집사/김소연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온유/성김: 박성권 목사
-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예삼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이형석 목사
- 예삼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삼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이너: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BCA 여름 캠프 및 신입생 모집

자녀 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세우는 일입니다. BCA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고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며 복음의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도록 돕습니다. 이번 여름 'LOGOS' 캠프를 통해 그 교육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다가오는 가을학기 등록을 기도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학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BCA 사무실: (949)854-4013/ 이메일: admin@bethelclassical.org

〈제3회 'LOGOS' 여름 캠프 모집〉

기독교 고전 교육의 핵심인 언어능력을 기르고, 다채로운 예체능 활동으로 창의력을 깨우는 4주간의 특별한 여정입니다.

- ▶ 일시: 7월 6일(월)~31일(금), 오전 9시~ 오후 4시
- ▶ 대상: 1~6학년 (2026년 가을학기 기준)
- ▶ 프로그램:
 - Academic(오전): 문법, 작문, 북클럽 등 고전 교육
 - Activity(오후): PE(체육), 미술, 음악 등 풍성한 활동
- ▶ 편의 사항: 주 단위 등록 가능
오후 4~5시 애프터 케어 운영
- ▶ 특별 혜택: 형제 자매 등록 시 Sibling Discount 적용
- ▶ 안내 및 등록: logos-summer.com



Bethel
Classical Academy

〈2026-27학년도 신입생 모집 및 등록〉

세상의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읽어낼 지혜로운 인재들을 BCA의 새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 ▶ 모집 대상: TK-9학년(2026년 가을학기 기준)
- ▶ TK 자격: 2026년 8월 31일까지 만 4세가 되는 학생
- ▶ 특징: 성경적 가치관이 녹아있는 고전 커리큘럼, 소수 정예 인성 교육
- ▶ 안내 및 투어 신청: bethelclassical.org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5월)	5/10: ①부-권준원	②부-권순렬	③부-최두현	④부-이지원
	5/17: ①부-김광영	②부-곽태일	③부-김도석	④부-김지인
	5/24: ①부-김병수	②부-김건성	③부-김성귀	④부-남경인

합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5월)	5/9: 서덕령	5/16: 석민석	5/23: 손세진	5/30: 성주영
---------------------	----------	-----------	-----------	-----------

강단꽃(5월)	5/3: 노성애, 전정례	5/10: 이선옥	5/17: 이인철, 임명신	5/24: 배사라, 송미선
---------	---------------	-----------	----------------	----------------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혜선(소아과), 간호사-채수정 다음주 | 의사-권석원(치과), 간호사-황선영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색(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1-3부 예배는 김병삼 목사님(만나교회 담임목사)께서, 4부 예배는 권경태 목사님(뉴질랜드 오버프로잉치치 담임목사)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요일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 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5월 7일(수) 저녁 7시 30분
문의: 조광중 집사 (949)706-416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연합기도회&기도학교 세미나 골방기도, 레위기기도, 두드림, 기도편지, 기도학교로 동역하시는 모든 분,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기도회 후, 기도학교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되오니 기도학교 등록 중인 성도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5월 9일(토) 헬시바 예배 후 오전 7시 30분, 살롬채플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 102차 베델동산 모집 102차 베델동산이 아직 참가하지 못한 성도님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기쁨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도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일시: 5월 22일(금)-5월 24일(주일)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김성균 집사(949) 838-4110



<봉사자>



<참가자>

◆ 교회학교 VBS 등록 2026 VBS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타 교인들도 등록하실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올해 여름에도 모든 베델의 자녀가 VBS를 통해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일정: 영유아유치 VBS 6월 9일(화)-12일(금), K-5 VBS 6월 16일(화)-20일(토)
등록/문의: register.bkc.org, 각 부서 전도사

◆ 'Promises of Purity' 자녀 성경적 성교육 학부모 세미나 성경적 성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녀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교육입니다. '나이별 성경적 성교육'과 '미디어와의 전쟁'을 주제로 PNG 이진아 대표님과 함께하는 귀한 세미나의 자리에 모든 교육부 학부모님을 초대합니다.

대상: 교회학교 학부모

일시/장소: 5월 18일(월)-5월 19일(화) 저녁 7시-9시, 비전채플

문의: 이신디 전도사 (213) 335-9049



◆ 제3회 BCA 'LOGOS' 여름 캠프 기독교 고전 교육을 바탕으로 오전/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언어(문법/작문/복클럽) 등의 아카데미와 PE, 미술, 음악 등 다양한 활동을 결합한 4주간의 프로그램입니다. 편의를 위해 주 단위 등록도 가능하고 4-5시 애프터스쿨 케어가 있습니다.(7면 참고)

대상: 1-6학년(2026년 가을학기 기준) sibling discount 있습니다.

일시: 7월 6일(월)-7월 31일(금), 오전 9시-오후 4시

문의: BCA 사무실 (949)854-4013

◆ 상담해 드립니다 개인 생활과 가정, 자녀 문제 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매주 화요일 상담 협동 목사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홈페이지, 큐알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성권 목사 (718) 490-9931



◆ 캄보디아/태국 단기선교 팀원 모집 8월에 진행되는 단기선교 팀원을 모집하오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캄보디아(황순현/황현주 선교사)

기간/문의: 8월 4일(화)-11일(화), 김태원 장로 (760)707-7070

- 태국(박상선/신영선 선교사)

기간/문의: 8월 10일(월)-18일(화), 김재호 집사 (714)512-7095

◆ 큐티인 5월호 판매 QTin 5월호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말씀으로 채우시는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축하해 주세요

이기민/박은죽 집사님의 가정에 아들 이고운(Koyun)가 4월 29일(수)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이신근 집사님(이원 집사의 부친)께서 4월 21일(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故 임충식 성도님(Melanie Kim 집사의 부친 & Gerald Kim 집사의 장인)께서 4월 24일(금)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故 이상표 성도님(이완희 집사의 부친, 김성복 집사의 시부)께서 4월 26일(주일)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故 안상녀 권사님께서 4월 27일(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故 이순영 권사님(변성주 집사의 모친, 정효훈 집사의 시모)께서 4월 27일(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Table with 3 columns: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Contains details for AWANA, Sparks, Truth & Training, and church news editors.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young Sam Kim

- 1st: Faith is Acknowledging God's Sovereignty (Galatians 2:20)
- 2nd: Living a Good Life of Faith! (2 Chronicles 7:14)
- 3rd: Training to Strengthening Faith (1 Timothy 4:7-8)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